



## 인도의 Harish-Chandra 연구소에 다녀와서

양재연(인하대학교)

2006년 12월 1~5일의 기간 동안 인도의 성시(聖市)인 알라하바드(Allahabad)에 있는 Harish-Chandra 연구소(간단히, HRI)에서 개최되었던 정수론 국제학술 회의에 초청연사로 초청되어 약 9일 동안 인도를 처음으로 여행하였다. 2003년에 HRI에 두 달간 정식으로 초청된 적이 있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초청을 수락하지 않았다. 11월 28일 인디아 항공편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인도의 수도 뉴델리에 밤늦은 오후 11시경에 도착하였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택시를 타기 위해서는 공항 출구 바로 옆에 있는 창구에서 목적지를 알려주고 택시 요금을 미리 지불하여야만 한다. 그러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택시 기사의 친절할 안내를 받으며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밖에서 아우성치며 손짓하는 수십 명의 택시 기사 중의 한 사람과 흥정하여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지로 갈 수 있지만, 처음 인도를 여행하는 외국인은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감수하여야만 한다(더군다나 늦은 밤이면).

한국에 비하면 그 곳의 택시 요금은 매우 저렴하다. 주최 측에서 마련한 인도 기술 연구소(IIT)<sup>1)</sup>의 게스트 하우스에서 하루 밤을 보낸 후 다음날 사우디 항공편(Air Sahara)으로 바라나시(Varanasi)에 낮 12시 경에 도착하였다. 마중 나온 HRI의 대학원생 Bahu의 환영을 받으며 역시 초청된 헝가리의 학술 회원인 Katai와 함께 소형 밴(van)을 타고 목적지인 알라하바드로 향하였다. 바라나시와 알라하바드와의 거리는 70~80km 밖에 되지 않지만 3시간 넘게 걸려 HRI에 도착하였다. 도중에 나로서는 흥미롭고 진귀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 길가에서 많은 소, 여러 무리의 낙타들, 심지어는 코끼리 까지 보게 되어 신비감을 맛보았으며, 인도인들이 숟가락과 젓가락 등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다. 길가에는 교통 경찰관과 신호등이 없어서인지

1) the Indian Institute of Technology : 델리, 뭄바이, 첸나이, 칸푸르 등 7개의 도시에 있음.

사람, 소, 차들이 뒤엉켜 있어 운전기사들이 경적 소리를 크게 울리며 사람들, 특히 소들을 피해가며 운전하는 흥미로운 모습을 보았다.

HRI에 도착한 후에 큰 게스트 하우스에서 방을 배정받고 긴 여정의 피로를 몇 시간 풀었다. 서울에서 이곳에 도착하는데 약 30시간이 걸렸다. 이날 저녁에 국제학술회의의 주관자인 B. Ramakrishnan 교수의 초청으로 나를 포함하여 여러 초청연사들이 알라하바드에서 최고급인 호텔에 저녁 초대를 받았다. N.-P. Skoruppa, K. Miyake, I. Katai, S. Akiyama, Y. Chen 등의 초청연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 호텔은 이곳에서 하나밖에 없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4성급 호텔로서 최고급 호텔이다. 최근에서야 맥도널드 가게가 처음으로 이곳에 입성하였다고 한다. 이 도시의 인구는 20~30만 명 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 도시이지만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인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서 깊은 도시라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다. 뒤에 이 도시에 관하여 보다 자세히 설명하겠다.

HRI에 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1966년에 콜카타(Kolkata; 예전이름은 Calcutta 임)에 있는 메타기업(Mehta Trust)의 출연기금으로 메타연구소의 이름으로 알라하바드에 설립되었다. 알라하바드 대학에 의해 운영되다가 1980년 대 중반에 와서 우타르 프라데쉬(Uttar Pradesh) 州 정부가 현 부지인 주시(Jhusi) 지역의 66 에이커의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기관인 원자에너지 부처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서 이 연구소는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 2001년 부터는 Harish-Chandra 연구소로 개명되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아시다시피 Harish-Chandra(1923~1983)는 브라만 계급으로 이 근처에 있는 칸푸르(Kanpur)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을 보낸 후 알라하바드 대학에서 4년간 이론물리학을 전공하였다. 졸업 후 방갈로르(Bangalore)에 있는 인도 과학원(IIS)<sup>2)</sup>에서 대학원

2) the Indian Institute of Science : 1909년에 Bangalore

과정을 마치고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으로 유학을 가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Paul A. M. Dirac (1902~1984)의 지도를 받으며 물리학을 공부하였다. 그의 박사학위 논문의 연구과제는 로렌츠 군의 무한 차원의 유니타리 표현에 관한 연구였다. 1947년에 물리학의 특성상 완벽한 증명의 마무리 없이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이에 만족하지 못하고 완벽한 증명을 요구하는 수학이란 학문에 빨려 들어가게 되었다. 미국의 콜롬비아 대학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1963년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 영구직 교수로 초빙되어 1983년 심장마비로 별세할 때까지 연구하였다. 1954년에 Cole 상을 수상하였으며 1974년에 인도 과학 학술원으로부터 Ramanujan 메달을 수여받았다. 그는 리군의 조화해석이론과 보형형식의 이론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인도 전역에서 뿐만 아니라 특히 이 지역에서는 Harish-Chandra 는 존경과 추앙을 받는 인물이다.

다시 HRI로 돌아가 이 연구소는 매우 훌륭한 도서관을 갖추고 있으며,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십 명의 대학원생들이 수학과 이론 물리학을 전공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연구소의 현관 복도에는 Harish-Chandra의 흉상이 서 있으며, 건너편의 대형 강의실의 입구에는 설립자인 Metha의 흉상이 서 있다. 본부 건물의 앞마당에는 저명한 사람(정치인, 수학자, 과학자)들이 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식수한 후 자신의 이름을 남겨 놓았다. A. Borel<sup>3)</sup> (1923~1983), R. Langlands<sup>4)</sup> (1936~ )와 같은 저명한 수학자와 이들의 부인들이 식수하였다. 그리고 Harish-Chandra의 부인인 Lily도 이 연구소를 방문하여 식수를 한 후 그녀의 이름을 남겨 놓았다. 앞마당에서 약 300미터 정도 나아가면 성스러운 갠지스 강이 있다.

에 설립되었음. 수준이 높은 과학 연구소임.

- 3) Armand Borel (1923~2003) : 스위스 수학자.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를 역임하였음. 리군과 보형형식의 이론을 연구하였음.
- 4) Robert P. Langlands (1936~ ) : 캐나다의 수학자. 1960년대에 Langlands Program 을 제창하였으며, 유체론과 보형형식 이론에 큰 공헌을 한 공로로 Wolf 상, Shaw 상 등을 수상하였음. 올해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정년퇴임하였으며, 현재 명예교수로 있음.

강가의 여러 곳에서 화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연구소는 아주 넓으며 주위는 담으로 둘러싸여 있고 군인들이 곳곳에서 경비를 보고 있다. 그들 가까이 가면 경례를 하며 친절하게 대해 준다. 연구소 캠퍼스 내에는 교수 아파트, 게스트 하우스, 여러 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 외국 방문자들에게는 전혀 불편함이 없다. 나의 경우는 음식 때문에 약간 고생을 하여 장기간 이 곳에서 체류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았다. 캠퍼스 바깥은 거리가 지저분하고 먼지투성인 데다가 무질서하여 처음에는 난장판처럼 보였지만 며칠 지난 후에는 이런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다. 도시의 중심가에서는 많은 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차들과 사람들이 신성시되는 소들을 피하는 광경이 흥미로웠다. 체류하는 동안 틈틈이 도서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인도의 철학, 종교, 역사, 문화를 차츰차츰 이해하게 되면서 인도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대형 강의실에서 국제 학술회의가 열렸으며 14명의 외국인 초청연사와 16명의 인도 수학자들이 초청 강연을 하였다. 이 곳에서 독일의 N.-P. Skoruppa, 캐나다의 M. Ram Murty, 일본의 K. Miyake, S. Akiyama, Y. Tanigawa, 헝가리의 I. Katai, 중국의 Y. G. Chen, 인도의 V. Srinivas, J. Sengupta, R. Balasubramanian, T. N. Shorey, E. Ghate, 러시아의 A. Raigorodskii 등의 초청연사들을 알게 되면서 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정수론 분야에서는 지난 수년 전에 미국의 저명대학 (Princeton, Yale 대학 등)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Langlands 프로그램과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젊고 앞날이 밝은 유능한 인도 수학자들이 하는 강연을 즐겼다. 필자는 『Remark on Harmonic Analysis on Siegel-Jacobi Space』의 제목으로 강연하였다. 필자가 강연하는 모습의 사진과 더불어 학술회의를 소개하는 기사가 주요 중앙 일간지인 『힌두스탄 타임즈(Hindustan Times)』에 게재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신문에는 이 학술회의에 관한 기사가 두 번이나 게재되었다. 필자는 강연 중간에 대칭공간상의 미분작용소 이론에 관한 Harish-Chandra의 업적을 언급하였다. 강연이 끝난 후에 한 중년의 인

도 여성 수학자가 다가와 초청강연자 중에서 필자만이 Harish-Chandra의 업적을 언급하였다고 말하면서 이 연구소의 이름과 결부시키며 강연 내용에 관하여 높이 평가하여 주었다. 필자도 이 연구소에서 Harish-Chandra의 업적을 강연 중에 언급하여서 기쁘고 나름대로의 의미도 있었다고 생각하고 싶다. 약 70여명의 수학자들이 이 학술회의에 참가하였다. 4년 후에는 남부에 있는 하이데라바드(Hyderabad)에서 ICM이 열리기 때문에 인도 수학자들이 매우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랑스러워하고 있었다. 하이데라바드는 남부의 안드라 프라데쉬(Andhra Pradesh) 주의 수도이며 인구가 대략 600만이며 인도에서 IT, ITES와 BT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기후도 다른 대도시에 비하여 온화한 편인데다가 고급 호텔과 여러 현대식 시설(예를 들면 컨벤션센터)들이 많아 큰 국제 학술회의를 개최하기에 적합한 도시로 인정받고 있다. 그래서 뉴델리와 Tata 연구소가 있는 뭄바이(Mumbai)를 제치고 3년 후인 2010년 8월에 하이데라바드에서 ICM이 개최된다. 인도는 지난 1세기의 기간 동안에 스리니바사 라마누잔<sup>5)</sup>, Harish-Chandra, 올해의 아벨상 수상자인 스리니바사 바라단<sup>6)</sup>(Varadhan) 등의 여러 저명한 수학자들을 배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명한 젊은 수학자 M. Bhargave, C. Khare, K. Soundararajan 등을 배출하였다.

알라하바드에 관하여 언급하지 않고서는 지나갈 수 없다. 앞에서 잠시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인도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유서 깊은 도시라고 언급

5) Srinivasa Ramanujan (1887~1920) : 인도의 전설적인 수학자. 정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지만 수학적인 재능을 맘껏 발휘한 수학 천재. 영국의 유명한 수학자 G. Hardy와 공동 연구를 하였음.

6) Ravi Srinivasa Varadhan (1940~) : 인도의 첸나이(Chennai)에서 태어나 인도 통계연구소(ISI)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미국으로 건너가 쿨란트 수학연구소의 교수가 되었음. 1996년에 미국 수학회에서 수여하는 Steele 상을 수상하였음. 2007년에는 노르웨이 정부에서 수여하는 아벨상과 상금 100 만 달러를 받았음.

하였다. 이 도시의 이름은 1583년에 무굴제국의 위대한 황제인 Akbar에 의하여 명명되었다. 이 도시의 옛 이름은 프라야그(Prayag)인데 이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희생의 도시』(place of sacrifice)라고 한다. 이 도시의 상감(Sangam)<sup>7)</sup>이란 성스러운 지역에서 갠지스강(the Ganga), 야무나강(the Yamuna)과 보이지 않는 전설속의 “지혜의 강”인 사라스와 티 강(the Saraswati)이 합류한다. 그래서 매년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몸을 씻으며 속세에서 지은 죄를 용서받고 또한 임종을 앞둔 사람들은 이 근처에서 몸을 씻은 후 죽음을 맞는다고 한다. 특히 인도 힌두교도들은 상감 지역에서 목욕을 하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며 모든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인지 연구소에서 장작을 피워 화장을 하는 여러 광경을 접할 수 있었다. 학술회의 주최 측에서 12월 3일(일요일) 오전 세션을 마치고 참석자들에게 상감지역과 무굴제국의 황제, 황제비의 무덤이 있는 공원과 여러 곳을 관광시켜 주었다. 배를 타고 누르스름한 색을 띤 성스러운 갠지스 강 위에서 사진을 찍으며 여러 생각에 잠기기도 하였다. 매년 1월에 이 지역에 수천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거의 한 달 보름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한다고 한다. 힌두교, 회교, 불교 신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이곳을 모여 든다고 한다. 성스러운 힌두교의 성지 순례 행사인 『쿰브 멜라』(Kumbh Mela)<sup>8)</sup>가 12년에 4번씩 하리드와르(Haridwar), 우자인(Ujjain), 나시크(Nasik)와 알라하바드에서 번갈아 가며 대대적으로 거행된다. 그래서 한 곳에서는 12년 만에 한 번씩 쿰브 멜라가 열린다. 힌두교의 창조 신화에 의하면 신과 악마들이 불멸의 음료인 신주(神酒)가 담겨져 있는 쿰브를 차지하기 위해서 12일 동안 치열한 싸움을 치른 후에 힌두교의 3대 신의 하나인 비쉬누가 손을 뻗어 쿰브를 낚아 췌 뒤 하늘의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 전에 네 곳에 멈췄다고 한다. 그 와중에 술의 몇 방울을 강물에 떨어 뜨렸는

데 그 곳이 상기에 언급한 네 도시 지역이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매일 상감 지역에 수백 만 명의 순례자들이 모여들어 한 두 달간 축제가 계속된다. 지난 2001년에 1~2월 두 달 동안 알라하바드에서 쿰브 멜라가 거행되었다고 하니 2013년에 대대적인 쿰브 멜라가 열리게 되어 있다. 금년에는 상감 지역에서 6년째 되는 “반(Ardh)” 쿰브 멜라가 열려 약 7천 만 명이 이 축제에 참가하였다고 외신은 전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의 식민지 지배 아래에서 독립운동을 하며 투옥되었던 인도의 초대 수상인 네루<sup>9)</sup>가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던 곳이고, 그의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sup>10)</sup>도 여기서 태어났다. 인도의 2대 수상인 샤스트리(1904~1966)도 이 도시에서 태어나 자랐으며, 8대 수상인 싱(Singh, 1931~)과 인디라 간디의 아들이며 9대 수상인 레지브 간디<sup>11)</sup>도 비록 이 곳에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정치적인 입지를 굳혔던 곳이다. 네루는 갠지스 강을 『인도의 강, 인도 문화와 문명의 상징, 끝없이 변하고 흐르면서도 영원하고 한결같은 강의 여신』이라고 묘사하였다. 이외에도 알라하바드는 많은 유명한 시인, 과학자, 종교인과 예술인들을 배출한 곳으로 유명하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비록 작은 도시이지만 이 도시는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문화·종교·교육적인 측면에서 인도에서 매우 유서

9) Jawaharlal Nehru (1889~1964) : 변호사의 아들로 태어나 인도의 독립 운동을 하다가 여러 차례 투옥되었음. 감옥에서 1930-33년 사이에 그 당시에 13살이었던 외동딸인 인디라 간디에게 역사 교육을 위해 보낸 편지들을 역어서 저서 『Glimpses of World History』를 1945년에 출판하였음. 1942-46년 기간 동안의 투옥 중에 감옥에서 『Discovery of India』를 저술하였음. 인도의 초대 총리이며 17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음.

10) Indira Gandhi (1917~1984) : 네루의 외동딸로 4대, 7대의 2차례 인도 총리를 지냈으며 15년 동안 총리직을 수행하였음. 1984년에 그녀의 경호원에 의해 암살되었음. 간디 성을 얻은 건 남편이 페로제 간디이기 때문임.

11) Rajiv Gandhi (1944~1991) : 인디라 간디의 큰 아들로 인도의 9대 총리를 지냈음. 역시 1991년에 정치적인 이유로 암살되었음. 그의 부인인 소냐 간디는 현 국민회의당 대표로 정치활동을 하고 있음. 그의 아들 라훌(Rahul) 간디는 현재 하원의원으로 차세대 총리 후보감으로 인정받고 있음.

7) 산스크리트에서 유래된 말로 “강물이 합쳐지는 곳”이라는 뜻임.

8) 힌두어로 『쿰브(Kumbh)』는 “물병”이며 『멜라(Mela)』는 “축제”라는 뜻임.

깊은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인도에는 크게 23개의 공식 언어가 있다고 한다. 실제로는 800 여 개의 방언이 사용되고 있으며 수많은 종교적,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가치관이 혼재되어 공존하고 있다. 그중에서도 영어와 힌디어가 인도 전 지역에서 공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남부지역에서 온 HRI의 교수들은 힌디어를 배운 적이 없어 타밀어(Tamil)를 사용하며 영어는 지식인들에게는 필수적이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전체 인구의 40 퍼센트 정도이고 힌디어를 모르는 총리가 취임한 적도 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TV를 통하여 힌디어를 배워서 힌디어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사회에서 출세하기 위해서는 영어는 물론이고 힌디어도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초, 중, 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있으며 이들 학교의 교육 수준이 매우 높다고 한다. 그런데 각 지방의 액센트가 너무 달라 처음에는 자기끼리의 영어를 알아듣기가 힘들다고 한다. 인도 인구가 현재는 대략 11억이라고 하며 국민소득은 매우 낮아 인구의 99% 정도는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갑부 100위 안에 5~6명의 인도인이 있다. 법적으로는 카스트 제도가 인정이 되고 있지 않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은 것 같다. 총리나 국회의원 등의 권력이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브라만 계급이라야만 유리하다. 전 인구의 약 80 퍼센트가 힌두교도이고, 약 15 퍼센트가 회교도이며 나머지 약 5 퍼센트는 불교, 기독교, 여러 종교의 신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필자가 짧은 기간에 인도에서 보고 느낀 것을 무모하게 적으면 다음과 같다. 수 천 년 전에는 인도 대륙에 수많은 작은 나라가 존재하였으며 그동안 많은 전쟁과 외침을 받으면서 합병되든가 아니면 지배를 받아왔다. 근대에는 거의 30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으며 그전에는 몽골의 징기스칸의 후손이며 페르시아인인 무굴제국의 황제들에 의하여 수 백 년 동안 지배를 받았다. 이 지배를 받는 동안에 회교 문화와 서양문화가 인도 고유의 문화와 융화되었지만 이 지역의 많은 부분의 문화는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고 있다고 생각한

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힌두교를 믿으며 신앙심이 깊고, 철학자와 승려들을 존경하는 사회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저마다 각 지역의 전통적인 관습과 언어를 고집하기 때문에 11억이나 되는 사람과 거대한 대륙을 하나로 효율적으로 통솔하기가 힘들 것이란 생각이 든다. 적어도 전 인구의 10~20 퍼센트가 되는 1억 이상의 사람들은 교육을 잘 받은 지식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들이 인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 각지에 진출하여 큰 활약을 하고 있다. 몇 십 년 후에는 많은 지역이 하이데라바드처럼 현대식으로 개발되리라 믿는다. 그때가 되면 인도는 세계에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파워를 과시하는 문화적인 선진국이 되리라는 것을 기대하여 본다.

인도는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3명의 문학 노벨상 수상자인 키플링<sup>12)</sup>, 타고르<sup>13)</sup>, 나이폴<sup>14)</sup>, 2명의 물리학 노벨상 수상자인 라만<sup>15)</sup>, 찬드라세크하르<sup>16)</sup>, 2명의 의학 노벨상 수상자인 로스<sup>17)</sup>, 코라나<sup>18)</sup>, 1명의 경제학 노벨상 수상자인 쉐인<sup>19)</sup>과 1명의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성녀 테레사<sup>20)</sup>가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보아 인도는 철학,

12) Rudyard Kipling (1865~1936) : 1907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음.

13) Rabindranath Tagor (1861~1941) : 인도의 철학자이며 시인, 191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음.

14) Vidiadhar Surajprasad Naipaul (1932~ ) : 영국의 문학가이지만 인도인들은 그를 인도인이라고 인정함. 2001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음.

15) Sir Chandrasekhare Venkata Raman (1888~1970) : 인도의 물리학자이며 1930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음.

16) Subrahmanyam Chandrasekhar (1910~1995) : 인도의 물리학자. 1983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음.

17) Ronald Ross (1857~1932) : 1902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음.

18) Har Gobind Khorana (1922~ ) : 1968년에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였음. 현재 MIT 교수로 재직 중임.

19) Amartye Kumar Sen (1933~ ) : 1998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였음.

20) Maria Teresa (1910~1997) : 루마니아에서 태어났지만 인도로 귀화하였음. 1979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음.



문학, 물리학, 의학, 경제학 분야에서는 수준이 높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12월 6일 귀국하는 날에는 주최 측에서 바라나시 공항으로 안내하여 주면서 바라나시에서 북동쪽으로 13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유서 깊은 사르나트(Saranath) 시를 관광시켜 주었다. 사르나트는 부처님이 알라하바드에서 남쪽으로 50 km 떨어진 콘단나(Kondanna)에서 6 여 년 동안의 고행을 통해 해탈한 후에 이곳에 와서 처음으로 설교를 하려고 하였지만 아무도 오지 않아 사슴 앞에서 처음으로 설법을 토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사르나트는 산스크리트로 사슴이 뛰노는 공원이란 뜻이며 우리 말로 녹야원(鹿野園)이라 번역이 되었다. 다메크 스투파, 아쇼카 석주, 네 마리의 사자상을 보고 감명을 받았다. 매년 세계 각지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으로 몰려오고 있다고 한다. 다메크 스투파는 부처님이 다섯 비구들에게 최초로 설법을 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쇼카 왕에 의하여 건립되었다. 인도에 여행할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사르나트를 추천하고 싶다. 성지 중의 하나인 바라나시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관광하지 못했다. 짧은 기간의 인도의 체류기간 동안 인도의 성지인 아라하바드 주변을 여행하면서 인도의 성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어 매우 기쁘고 즐거웠다. 또한 틈이 나는 대로

인도의 철학, 종교, 문학, 시, 문화, 역사들을 공부하려고 한다. 프랑스의 위대한 수학자 앙드레 베이유<sup>21)</sup>는 우타르 프라데쉬 주의 북부에 있는 알리가르 회교대학에서 1930~32년 동안 강의를 하였으며, 산스크리트를 배워 평생 동안 산스크리트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였다고 한다. 독일의 위대한 수학자 지겔<sup>22)</sup>도 뭄바이의 Tata 연구소에 4차례 초청받아 장기간 체류하면서 산스크리트를 배웠다고 한다. 산스크리트로 수학논문을 쓰려고 시도하였다고도 전해진다.

21) André Weil (1906~1998) : 프랑스 수학자. 미국의 시카고 대학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에서 교수로 역임하였음. Wolf 상을 수상하였음. 정수론과 대수기하학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음. 시몬느 베이유는 그의 여동생임.

22) Carl Ludwig Siegel (1896~1981) : 20세기의 위대한 수학자. 정수론과 천체역학의 분야에 큰 공헌을 하였음. 제1회 Wolf 상을 수상하였음. 괴팅겐 대학과 프린스턴 고등연구소의 교수를 역임하였음.